

광주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구역

화정·염주주공 등 12곳 신규 지정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확정...32곳 해제

광주시의 노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등을 2020년까지 정비하는 방안을 담은 '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LH공사나 광주시가 맡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율이 88.5%나 되는 반면 민간건설업체가 각각 노후 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추진율은 45.5%와 36.8%로 절반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

Table with 3 columns: 지역 (Area), 해제구역(25개소) (Discontinuation Area), 준공구역(7개소) (Completion Area), 신규구역(12개소) (New Designation Area). Rows include areas like 계림2, 금동2, 대인, 송정, 화동1, 지산2, 양동1, 양동2, 양동4, 화정동 삼익, 방림동1, 서동1, 서동, 월산3, 진월1, 월산신우, 봉선모이2차, 봉선명지맨션, 유동, 중흥2, 연제동외촌, 동림동 죽림, 용봉촌, 원도산, 황룡.

(방림동 340-3 일대), 서동 1(서동 및 백운동 일대), 서동(광주공원 인근), 월산 3(월산 3동 일대), 진월 1(진월 동 일대), 봉선명지맨션, 봉선모이 2차아파트, 월산 신우아파트 등 8곳이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류됐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곳이 새롭게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서구 염주주공 아파트도 포함됐다.

환경생태보전금 '낮잠' 재우고... 세계도시환경포럼 과다 책정...

“재정난 광주시 예산 허투루 쓴다”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광주시에 대해 광주시의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 2)은 11일 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협력금 27억1000여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전액 환경부에 귀속됐다 50%는 교부금 형식으로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손 의원은 또 “시는 교부받은 27억 1000만 원도 법령에 따라 생태계 보전 등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일반회계에 포함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지않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반환금을 축적해 사용하기로 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교부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포함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재홍 의원 김보현 의원

풍암저수지, 공원계획 변경없이 무분별 추진

강은미 시의원 “광주시 눈 감아주기” 질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추진돼왔던 풍암저수지 조성사업을 묵인해오다 뒤늦게 서민 심의만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림터와 분수, 목교, 화장실 등 풍암저수지 조성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지난 2009년 광주 서구의회에 서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공사가 잠시 중단됐고, 이후 광주시는 뒤늦게 서민 심의를 통해 졸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민주·서구 4)은 11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없이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수변림터에는 5억원 가량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사실상 원형 훼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없이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민심의를 단 한차례 시행될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광주시가 ‘눈 감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광주시가 맡아야 하는데도 관리당사자인 서구청에 떠맡겼으며, 서구청의 불법조성에도 단 한차례의 시청 조치도 없이 조성사업비 80여억원 중 30여억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줬다”고 주장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전시행정 표본”

문상필 시의원 지적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1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식재 후 관리대책도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1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온이 0.74도, 전국 기온이 1.7도 상승했고 광주의 기온상승은 2.48도로 월등히 높다”며 “이런 도시 열섬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섬지도와 바람길 지도 등의 자료 등을 기초로 환경정책, 공원녹지계획을 어우르는 광주시 전체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기능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2005~2014년 10년간 총 13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91억원을 투입해 942만(식재율 94.2%)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문상필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광주시 끝까지

흥인화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흥인화 의원(민주·북구 4)은 11일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13만2천명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7%를 기록했다. 서울이 605만명이 방문해 가장 많았고, 부산 123만5천명, 대구 29만7천명, 대전 28만9천명, 울산 18만7천명 순이었다.

광주김치 수입, 수출의 700배

광주시의 한 해 김치 수입물량이 수출량의 최대 700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나종천 의원(민주·남구 3)은 11일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광주지역 김치 수출량은 3에 불과했지만 수입물량은 무려 700배에 육박하는 2095t로 집계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Advertisement for Kujin (국제-에이스 큐텐) featuring a heart-shaped image of a family and a man on a phone. Text includes: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Father, Mother, I love you!),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Love is the practice of small care. Please say words of love to your parents.), and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The best medicine is love.). Product details: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Contains Coenzyme Q10 antioxidant supplement), 비타민 A, C, E의 보급 (Supplies Vitamins A, C, E), 100% 천연 재료 사용 (100% natural ingredients).